구동에서

삼시세번

김 종 민
논설실장

집 안 거실 한 켠에 자리잡은 고무나무가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잘 죽지도 않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다고 해 공간을 내어준 뒤로 나름으로 돌본 덕분인지 신선함을 지켰다. 잠시라도 바라보고 있으면 말 그대로 무념무상, 소위 '멍 때리기'에도 좋았다.

하지만 행운이었나 싶다. 물 주기를 놓치는 것 부터였다. 그것도 삼시세번 이었을까. 두 번은 그랬을 수 있다 했으나 마지막은 용납될 리 만무했다. 잎파리가 하나 둘 갈색으로 변하더니 하나 둘 떨궈졌다. 이후 속도가 붙어 흉한 몰골로 말라붙었다. 고사(枯死)다.

너무도 쉽게 매 순간, 타이밍을 놓치는 게 문제다. 식물 가꾸기도 그랬다. 반려식물 문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완전 초짜였다. 쓴 실패를 맛봐야 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 실패를 경험하곤 한다. 또 이를 인정하면서도 거듭한다. 실수를 줄이는 노력에는 지나치게 인색해서다. 그러나 뒷감당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생만사 새옹지마(人生萬事 塞翁之馬)'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정치는 어떤가. 살아움직이는 생물이면서 피도 눈물도 없다. 냉혹한 현실을 새삼 되새기고 있다. 일상생활과 다르게 무심했다간, 실수한다면, 참담한 실패를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단 한 번 뿐일까. 적어도 삼세번, 세 번의 기회는 있을 것인데도 제때 살리지 못해 결국에 파탄나고 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호남지역 경선이 추석 직후로 예정돼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 여당 텃밭에서 '명낙대전'이 불붙는다.

과반 득표율 1위를 달리는 대세론의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의원 배지를 던진 배수진 이낙연 전 대표의 살얼음 승부다. 본선 직행의 쐐기를 박을 것인가, 극적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느냐다. 빅3로 출발했지만 중도하차, 백의종군을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의 고향 전북 표심의 향배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휘말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로까지 번지면서 독주체제가 흔들린다. 본인은 괴문서라고 공작하지 말라는데 최대 위기다. 홍준표 의원은 직선 성격에 사이다 화법으로 지지세가 급등했다. 사사건건이 대립각을 세우는 '윤홍혈투', 매섭다.

정치판이 출렁이고 있다. 치열한 경쟁 만큼이나 격정의 시대다.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지나칠 정도의 네거티브가 넘친다. 하여 감동도 없고,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 지역 공약이라고 해봐야 대동소이다. 비교우위는 없다. 결국 '될 만한 있는 후보'를 밀어주는 호남의 전략적 투표가 판세를 결정짓는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일, 중대한 정치 일정이다. 본격 경선전에 들어서 흥행은 아니어도 분위기는 달궈지는 중이다. 대선 주자들은 모든 것을 쏟고 있다. 사활을 걸었다. 그래서 명심해야 한다. 작은 실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아울러 진정성으로 공략해야 승산이 있다.

민족 대이동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여전한 기세의 코로나 속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당국은 백신 접종률을 보다 신속히 끌어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 가족, 친지 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수상한 시절이다.

한 순간의 유혹에 지금껏 공든 탑이 무너져선 안된다. 방역에 있어선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끝장이다. 실수가 곧 실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끈마저 놓아가고 있다. 제발 장사 좀 하게 해 달라, 살려달라고 절규한다. 고향가는 길이 막힌 코로나 한가위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유독 무덥고 목말랐던 지난 여름, 나무 한 그루를 잃었다.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많아 요즘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뛰어난 공기정화식물, 안타깝다. 삼시세번이면 실수라 둘러댈 수 없다. 또 한 번의 실패가 분명하다.

인간만사, 삼세번 행운은 없다. 문재인 정부 역시나다. 한 번은 괜찮겠지 했다. 두 번도 괜찮았다. 그러나 세 번의 정책 실패, 특히 날개 단 부동산 문제는 분노를 사고도 남았다. 한 번 돌아선 민심은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임기 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주목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와 전남, 호남은 상징성이 큰 요충지로 '1% 표차' 역대 가장 긴박한 선거의 분수령이다. 천하의 민심을 얻으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산이다. 내 편을 삼기 위한 '삼고초려(三顧草廬)'라도 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힘들어 아파하는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또 숙고해야 한다. 무릇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그 해답은 삼시세번일 수 있다.

1년8개월 코로나로 무너진 공동체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할 때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길 기원한다.

문화난장

미디어아트 광주에서 창의시민으로 살아가기

김 영 순
광주문화재단 문화융합본부장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순전히 옛말이다. 지금은 1-2년 만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행여 무슨 일이 생겨 10년 정도 잠들었다가 깨어난다면 끔찍한 일이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적응 자체가 힘들 것이 뻔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때문에 라테들은 허둥댈 수밖에 없다. 예술과 일상의 경계만 없어진 게 아니다.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 조차 허물어지고 있다. AI와 인간의 만남도 심심찮게 이뤄진다. 이제 앞으로 미래사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뜀뛰기를 하며 달라질 것이다. 급변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 살짝 두려워진다.

광주는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가입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일궈낸 성과였다. 가입 전부터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작가양성 지원사업으로 펼쳤던 레지던스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플랫폼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미디어아트 체험을 도모하며 미디어아트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또 창의랩을 통해 미디어아트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다각도로 시도하며 도시가 뿜어낼 창의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어디 그뿐이랴, AMT(Art Media Technololgy) 조성이 이뤄지고 있고 미디어아트 창의벨트사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크리슈머'라는 말이 있다. 크리에이터와 컨슈머를 합한 말이다.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품을 수정하고 만들어내는 적극적 소비자를 지칭한다. 이같은 현상이 경제적인 파트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다. 10년 전 시민은 그냥 미디어아트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 멋있네."하며 그게 어떤 원리로 구동되는지 잘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예술, 저거로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면 좋겠네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이젠 단순히 빛나는 것만이 미디어아트가 아니라 AI, 메타버스 등 과학기술이 결합하여 여러 형태의 예술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관람객에 머물던 시민들이 작가로 나서고 있다. 기술이 담보되는 미디어아트에서도 그렇다.

시민들도 관심만 기울이면 미디어아트의 원리를 이해하고 작업까지 도모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심심찮게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창의랩'중 시민창작프로젝트도 그 중의 하나. 지난 4월 미디어아트 특화공간과 광주공원 일대를 변신시키기 위해 작가, 예비작가, 시민 등 3개 층위로 진행해왔다. 시민프로젝트는 시민 9명이 전문가의 지원 아래 미디어아트 이해와 그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3분30초 '코로나 엔딩송'이 나왔다. 참여 시민들은 지금껏 해보지 못한 미디어아트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 도전의 즐거움을 만끽했다며 좋아했다. '지금,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여 나온 결과물은 10월1일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 위치한 '5G실증체험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미디어아트레지던스 10년을 기념하여 10월 1-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공원 일대에서 '회복-광주공원 빛·소리 찰랑찰랑'이 펼쳐진다. 오후 7시30분부터 10시까지다. 이 전시 주제는 '회복'이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가졌던 우울감과 암울한 분위기를 인간과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적 회복으로 힐링하고 바꿔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출발했다. 앞서 말했던 대로 미디어아트 창의랩에 참여했던 시민작가들을 비롯하여 전문작가, 예비작가들이 참여해 미디어아트의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한다. 또 10기 레지던스 작가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레지던스를 거쳐간 작가들이 함께 빛과 소리가 연출하는 미디어의 세상을 만들어낼 참이다.

내년 상반기 AMT가 개관되고 앞서거지 뒷서거니 미디어아트창의벨트 사업이 진행되며 또 미디어아트페스티벌(10월 5-10일, 아시아문화전당 일원)도 펼쳐진다. 미디어아트 도시로서의 외관은 물론 내실까지 꽉 채워 나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러려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일단은 '광주공원 빛·소리 찰랑찰랑' 나들이에 나서보면 좋겠다.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도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미디어아트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 것이다. 다음엔 시민작가로 나서 봄직이 어떠한가. 여기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이므로.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안전한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올해 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전 국민이 지친 가운데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명절 분위기에 방심하여 방역지침 위반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연휴 기간 생활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첫째, 연휴 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스·전기·화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가스밸브는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전기제품은 콘센트의 전원을 뽑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농촌 주택의 경우 이웃에게 집이 비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장거리 운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운전 실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조금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다는 마음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휴식 없이 장시간 운전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사고·부주의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하자.

셋째, 명절에는 가정에서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기 사용이 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주방에서 식용유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요리 중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려 소화하지 말고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넷째, 조상을 기리기 위해 벌초 혹은 성묘를 준비하고 있다면 검은색 등 어두운색 계열의 옷은 피하도록 하자. 실수로 말벌집을 건드렸을 땐 머리를 감싼 후 최대한 빠르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여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추석 명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연휴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하지만 모든 사고를 이들이 책임져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종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나의 노력이 가장 우선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학순·영암소방서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대선 지역공약 채택에 사활 건 광주·전남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선 후보자들이 지역 현안들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역설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전략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합당하게 제 몫을 챙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겠다.

광주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및 인공지능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조기 착공,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광주와 인근도시를 공동생활권으로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친환경차, 첨단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8대 분야 20개 중점사업을 선정했다.

전남은 환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비전 실현을 위해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을 키워드로 8대 추진전략 3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광주·경남·부산·울산을 잇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K-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국립의과대학, 영호남 동서내륙 광역 관광벨트,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앞당길 중요 사업들을 고민하고 발굴하는데 전력해 왔다. 이제 밑그림이 완성됐으니, 후보 캠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공약집 명문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형적 불균형 문제를 꼭 해소해야 하며, 시·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내야 한다. 주민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지역사회의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 대선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주요한 공약들을 주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해 최종 선정되도록 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 때다.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민족대이동 추석 코로나 차단 총력전 태세

가족이 만나는 것 조차 허용되지 않는 코로나 명절은 이번 추석이 마지막이길 모든 국민은 소원한다. 확진자 규모가 재차 2천명대로 여전하면서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정부는 민족 대이동에 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특별대책기간(17-22일) 이동 인원은 3천226만명으로 예측됐다. 하루 평균 538만명이고, 고속도로 차량은 472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3.5% 증가한 수준이지만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보다는 16.4% 줄어든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철도(코레일)의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율은 48.8%로, 지난해(45.2%) 보다 소폭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창쪽 좌석만 판매한 수치라고 한다. 노선별론 전라선 62.6%, 호남선 55.8% 순으로 높았다. SRT 예매율도 72.7%로 집계됐다. 올해 설 명절 대비 8.7%, 지난해 추석 대비 4.8%p나 증가했다.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비상 모드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의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칫 코로나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불안불안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를 점차 완화하고 궁극에는 일상 생활과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추석 연휴 이동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불가하다면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백신 완료자라 함은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많이들 지치고 힘든 시기다.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오죽하면 세상과의 이별을 고하겠나. 하지만 얼마남지 않았다. 정부 당국의 거듭되는 호소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까지 전 국민이 치른 희생을 돌아봐야 한다. 결코 헛돼선 안된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명절이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아닌 안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침을여는 詩

단풍나무의 근육

백수인

가을이 제법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나는 무등산 토끼등에서 원효사 계곡으로 난 편편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단풍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단풍잎은 인간 세계의 빛깔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황홀한 빛깔의 잎사귀에 환호할 때 나는 가만히 그 나무들의 근육을 보았습니다. 역도선수 장미란이 140킬로그램의 바벨을 인상으로 들어 올릴 때의 그 단단한 근육과 불거지는 힘줄이었습니다.

단풍나무가 저 무거운 코발트색 하늘을 바벨처럼 번쩍 들어 올리는 절정의 순간에 잎사귀들이 저렇게 붉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집 '더글러스 퍼 널빤지에게', 푸른사상, 2021)

[시의 눈]

드넓은 코발트빛 창공을 들고 있으려면 역사(力士)는 얼마나 붉은 힘줄을 돋워야 할까요. 그는 '울긋불긋'이 아닌 '울퉁불퉁'한 '근육'을 지녔군요. 시는 단풍의 위용을 붉은 힘줄로 시각화합니다. 하늘을 힘차게 받치는 단풍근육은 산에 있지만, 사람의 산엔 피의 단풍근육이 무너지지 않으려 구차한 살림이나마 떠받치고 있습니다. 인간세상부터 뻘건 가을은 먼저 왔군요. 정치가가 입에 바르기 좋아하는 꿀이라는 '국민'은 사실 단풍보다 진한 피땀으로 얼룩져있습니다. 그걸 번쩍 들어 올릴 헤라클레스나 삼손 같은 장사는 없을까요. 소상인들은 붉은 핏대의 '단풍근육'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어 갑니다. 해봐야 알통은 그대로지만, 오늘도 바벨을 듭니다. 울긋불긋, 잎사귀만 단풍든 게 아닌, 울퉁불퉁, 나무전신이 쳐대는 몸부림이 울울긍긍해 가는 가을입니다. '나무가을'을 보며, '사람가을'로 단풍나무가 되는 시장에 가봅니다. 마지막 문 닫을 '떨이떨이'의 조종(弔鐘)소리가 단풍근육을 흔듭니다. 백수인 시인은 전남 장흥에서 나, 조선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거쳐 동 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2003년 '시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바람을 전송하다'(2016)가 있고, 저서 '소통과 상황의 시학'(2007) 등 많습니다. 그는 역사와 삶을 서사와 서정으로 녹여 합환시키는 포용미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